

[아시아의 진보 사상가들](7) 인도네시아 식민 역사 극복 앞장 프라무다

경향신문 | 박소현 | 2012. 10. 14. 21:54

수하르토 체제 균열 낸 민족주의자

2006년 4월 인도네시아 작가 프라무다 아난타 투르(사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인도네시아의 태동과 탄생, 혁명의 영광과 군부독재 시기의 고난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은 그를 빼놓고 인도네시아의 정치문화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프라무다의 작품 속에 그려진 아직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인도네시아라는 구상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또한 죽는 날까지 계속됐던 인도네시아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역시 여전히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다. 프라무다가 꿈꾼 인도네시아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라고 부르는 국가의 기원은 네덜란드령 동인도다. 식민통치 이전 인도네시아 영토에는 크고 작은 왕국과 부족이 난립하고 있었을 뿐 통일된 형태의 국가는 없었으며, 식민 후기인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전체를 아우르는 '인도네시아'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종족마다 언어가 달랐던 터라 공통의 언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은 말레이어를 '인도네시아어'로 채택했다. 인도네시아어는 식민주의자의 언어인 네덜란드어도 절대 다수인 자바인이 쓰던 자바어도 아니었다. 즉, 인도네시아 민족주의는 혈통 중심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안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광의의 민족주의였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토착 엘리트는 네덜란드의 수탈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 지위를 보장받아왔다. 인도네시아라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서구 식민주의와 토착 봉건제의 모순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었다. 1945년 건국 이후 4년간 돌아온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싸운 인도네시아 인민은 수카르노의 지휘 아래 사회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인도네시아어와 수카르노의 열렬한 지지자인 프라무다는 네덜란드와의 독립전쟁 당시 입대해 싸우다 투옥되기도 하고, 그 후에는 수카르노의 혁명을 위해 싸웠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던 시기 인도네시아어는 혁명의 언어가 되었다. 프라무다는 신생국가를 지키고 정신적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하며 과거에 대한 지식은 다른 아님 인도네시아어로 쓰여야 한다고 보고 방대한 저술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1965년 혁명은 좌절되고 32년간 지속된 수하르토의 신질서 체제가 시작된다. 프라무다의 기나긴 고난도 함께 시작된다. 그는 재판 없이 체포돼 외딴 섬 부루에 있는 수용소에 14년간 수감된다. 생존마저 위협받는 수용소 생활 중에서 그는 부루 4부작으로 알려진 장편소설 4편을 차례로 집필한다. 부루 4부작은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주인공 '밍케'가 민족주의 운동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의 기원과 성격을 밝히고 수하르토 신질서의 본질을 폭로한다. 프라무다에게 수하르토 체제는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연속선상에 있을 뿐 자신이 꿈꿔온 인도네시아와는 거리가 멀었다(실제로 식민지 시기와 신질서 시기 지배계층은 놀라울 정도로 그 구성이 변하지 않았다). 수하르토 체제는 학교교육을 통해 군사적이고 자바 중심적인 공식 역사를 주입하고 인민의 머릿속에서 혁명의 기억을 지워버리고자 했다. 여기에 균열을 낸 것이 바로 프라무다의 작품들이다. 프라무다의 작품은 금서였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돌고 돌면서 공식 역사가 지워버린 공백을 메우고 대항적 민족 서사를 경험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역사를 둘러싼 투쟁이 젊은 세대가 반독재 투쟁을 벌이고 1998년 민주화를 이뤄내는 밑거름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아직 오지 않은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프라무다는 1998년 민주화 이후에도 근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인도네시아를 목도하며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토로하곤 했다. 특히 자바주의로 대변되는 인도네시아에 여전히 남은 봉건적 관습과 권위에 복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의 비겁함에 대한 비판은 뼈아프다. 프라무다의 인도네시아 사회에 대한 분석과 세계와 인도네시아 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놀랍게도 적확하지만 어떤 이론이나 사조에도 기대고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직조하고 자신의 언어로 그 천을 이어 현실을 재구성해낸다. 말년의 그는 인도네시아가 점점 더 자신들이 기획했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절망했다. 그러나 동시에 오직 총체적 혁명만이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임을 역설했다. 프라무다가 꿈꾸었던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요원해보이지만, 그를 스승이자 벗으로 기억하는 젊은 세대에게 그의 기획은 여전히 마르지 않는 정치적 상상력의 원천이다.

< 박소현 | 싱가포르국립대 지역학 석사 >